



은행주도 오를 때 됐다

은행 Weekly | 2026.5.26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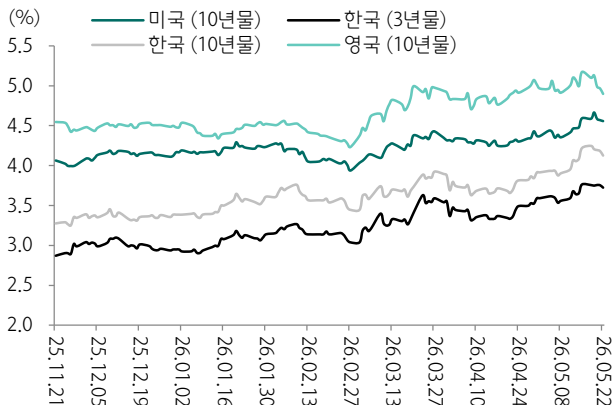
- 홍콩 ELS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면서 금융지주의 WM 전략이 은행과 증권을 결합한 복합채널 중심으로 재편. 은행은 고객 접점과 안정형 자산관리를 담당, 증권사는 투자상품 공급과 고객자산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 정부가 '잔인한 금융'에 대해 경고장을 내밀자 금융위원장이 대한민국 금융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의 대수술을 예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전성 규제 완화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계획 중
- 은행권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잇달아 예금금리를 높이며 고객 자금 붙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예금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는 머니무브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청년미래적금 출시 영향도 주시하는 분위기
- 금융당국의 핵심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 은행권 홍콩 ELS 관련 제재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제재 안건을 재검토하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며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역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이달내 발표가 어려운 상황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5월 22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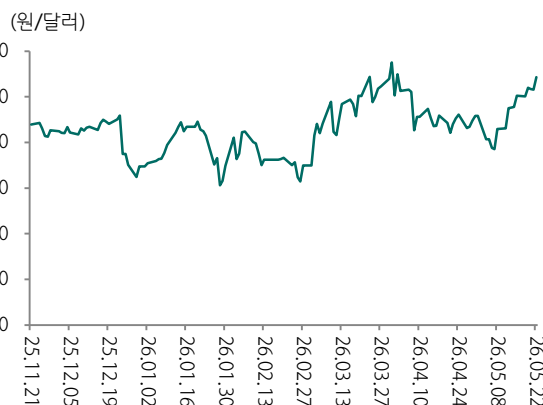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90	8.7	21.7		6,421,467.8	4.7	22.8	35.1	86.2	7,197.3	-496.8	-17,207.0	9,581.0
은행	0.67	7.9	8.8	0.63	203,746.8	2.4	-3.5	-11.4	21.8	310.8	23.0	-225.6	-92.0
KB 금융	0.89	9.3	9.9	0.76	59,656.1	2.8	-0.2	-5.2	28.3	126.1	48.3	-98.0	-34.6
신한지주	0.75	9.3	9.1	0.65	46,611.1	3.3	-1.6	-3.7	27.7	56.0	-3.8	-26.9	-30.4
우리금융	0.57	7.3	8.2	0.52	23,160.1	1.0	-11.9	-22.7	12.7	19.0	-1.2	-19.3	-4.0
하나금융	0.67	7.7	9.2	0.63	33,500.3	2.6	-0.7	-7.0	29.8	108.3	19.1	-95.2	-14.0
기업은행	0.45	6.0	7.6	0.55	16,745.9	0.5	-6.9	-26.4	0.2	-16.1	-21.1	15.7	-0.8
BNK 금융	0.47	6.3	7.7	0.53	5,421.4	0.9	-7.2	-22.9	10.1	20.5	-4.4	-7.4	-4.6
iM 금융	0.46	6.2	7.6	0.48	3,039.0	4.2	-0.3	-12.6	21.7	-0.1	-0.2	4.0	-4.2
JB 금융	0.72	6.3	11.9	1.00	4,734.6	0.8	-18.7	-32.9	-1.9	0.7	-10.7	-2.6	1.3
카카오뱅크	1.53	18.9	8.3	0.72	10,878.4	1.6	-8.6	-20.6	5.6	-1.7	-0.1	12.8	-10.8
삼성카드	0.61	8.7	7.2	1.97	5,584.4	-5.1	-10.7	-28.5	-13.8	-6.5	-2.7	-1.9	7.9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2.4% 상승했지만 KOSPI 상승률 4.7%에 비해서는 초과하락.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완화에 따른 반도체 주가 상승과 더불어 국민성장펀드의 흥행으로 KOSDAQ까지 급등하는 가운데 은행주도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습. 다만 이전과는 달리 주도주 일변도의 상승 흐름은 가격 부담 등으로 인해 다소 약화되고 업종간 순환매가 일부 나타나려고 하는 분위기였음. 금요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를 포함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단계적 재개방 등 종전 합의에 미국과 이란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 다만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히 크고 핵 논의는 30~60일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휴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보합세를 보이다가 협상 낙관론이 커지자 10년물은 하락. 다만 2년물은 상승하는 등 다소 상반되는 모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6%로 한주간 4bp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12%로 4bp 추가 상승. 반면 국내 국채금리는 하락세 전환. 10년물 국채금리는 4.13%로 한주간 9bp 하락했으며, 3년물은 3.74%로 3bp 하락. 한편 원/달러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엔화 약세에 동조되는 분위기로 인해 장중 1,520원에 근접했고, 결국은 1,517.2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20.1원 추가 상승.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1,520원 상회를 저지하는 모습이었음. 지난주에도 외국인인 반도체 위주의 대규모 매도세 지속으로 KOSPI를 17.2조원 순매도. 은행주도 2,25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7.2조원과 3,100억원 순매수.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 1,600억원을 감안해도 1,500억원 가량을 실질적으로 은행주 순매수
- 전주 특징주는 iM금융. 주가가 4.2% 상승해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 캐피탈로 추정되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지난주 외국인들의 은행주 순매도속에서 유일하게 iM금융만 순매수를 기록 중. 그 외 신한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 등은 2.5~3.5%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선방. 반면 삼성카드사는 5% 넘게 하락했는데 이렇다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제에 따른 카드론 성장률 둔화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금주 주요 이슈는 28일(목) 예정된 한은 금통위.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첫 금통위로 시장은 대체로 동결 전망. 외사에서 금통위 이전 호르무즈 개방시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금번 합의는 종전이 아닌 휴전 성격일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고, 첫 금통위라는 점도 고려해야할 듯. 시장의 관심은 소수의견과 점도표 등 얼마나 매파적인 동결일 것인가에 있음. 부동산과 환율 문제, 그리고 물가 압력 측면에서도 금리 상승에 대한 당위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판단. 미국과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국채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상기 요인에 따른 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이란간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선박적체 해소와 기뢰 제거 등의 변수로 유가 정상화 시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다만 유가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은 유가 하락을 기정사실화해 주가에 빠르게 반영시킬 것으로 예상. 금번 미국과 이란간 협상에 대한 신뢰성이 커질 경우 업종간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시장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성장과 이익이 확실한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만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편더멘털이 나쁜 양호했음에도 소외 폭이 컸던 업종들로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반도체 등 주도업종 몇 곳 외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동안 소외되었지만 은행주도 4월 이후에만 KOSPI를 47%p나 underperform하는 등 소외 폭이 과도했다는 점에서 점차 상승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 중동 협상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경우 국채금리가 단기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고, 은행주에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던 건전성 약화 이슈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별 상대 관점에서도 은행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은행 전체 2분기 추정 손익은 7.1조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해 양호한 실적 시현 예상. 1분기와는 달리 대부분 은행들의 실적이 모두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임. 2분기에는 CET 1 비율 또한 1분기 하락 폭을 모두 만회해 다시 큰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현재 시장 PBR이 1.9배까지 상승했는데 은행주만 평균 PBR이 0.67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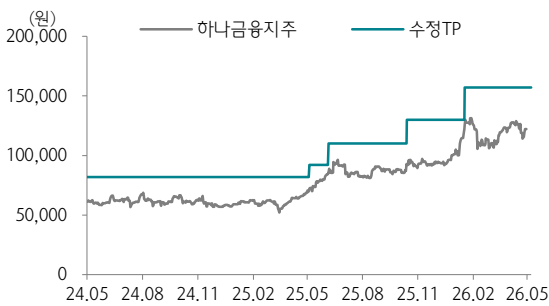
하나금융(매수/TP 157,000원),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 하나금융은 환율 하락 전환시 모멘텀 발생 기대되고, 두나무 지분 투자 또한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 NIM 상승세와 대손비용 감소로 이익가시성 높아졌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시장의 우호적 평가 예상
-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던 은행들의 주가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금융도 그 중 하나. 다만 실적 부진은 주로 비경상 요인 때문으로 2분기 실적 회복 기대. 현 PBR 0.57배로 경쟁은행지주사들과의 괴리를 다소 크게 벌여줬다고 판단

Global Peer Table						(2026년 5월 22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90	8.7	21.7		6,421,467.8	4.7	22.8	35.1	86.2
은행	0.67	7.9	8.8	0.63	203,746.8	2.4	-3.5	-11.4	21.8
KB금융	0.89	9.3	9.9	0.76	59,656.1	2.8	-0.2	-5.2	28.3
신한지주	0.75	9.3	9.1	0.65	46,611.1	3.3	-1.6	-3.7	27.7
우리금융	0.57	7.3	8.2	0.52	23,160.1	1.0	-11.9	-22.7	12.7
하나금융	0.67	7.7	9.2	0.63	33,500.3	2.6	-0.7	-7.0	29.8
기업은행	0.45	6.0	7.6	0.55	16,745.9	0.5	-6.9	-26.4	0.2
BNK금융	0.47	6.3	7.7	0.53	5,421.4	0.9	-7.2	-22.9	10.1
iM금융	0.46	6.2	7.6	0.48	3,039.0	4.2	-0.3	-12.6	21.7
JB금융	0.72	6.3	11.9	1.00	4,734.6	0.8	-18.7	-32.9	-1.9
카카오뱅크	1.53	18.9	8.3	0.72	10,878.4	1.6	-8.6	-20.6	5.6
삼성카드	0.61	8.7	7.2	1.97	5,584.4	-5.1	-10.7	-28.5	-13.8
미국									
S&P 500	5.06	22.2	21.5	5.60	66,565.1	0.9	4.8	8.5	9.2
은행	1.53	12.2	12.5	1.08	2,051.2	3.2	-2.8	-2.9	-4.3
Wells Fargo	1.36	11.7	12.8	0.99	233.8	4.1	-4.6	-13.4	-18.0
JPM	2.27	13.8	17.1	1.27	820.9	2.9	-2.1	-0.9	-4.9
CITI	1.06	11.5	9.7	0.71	213.4	1.4	-3.1	8.4	7.2
BOA	1.29	11.6	11.7	0.96	367.6	4.1	-2.5	-1.8	-5.8
US Bancorp	1.36	10.7	13.1	1.17	85.1	3.2	-3.1	-5.6	2.8
PNC	1.45	11.7	12.7	1.26	88.0	3.0	-2.6	-5.2	5.0
BB&T	0.97	10.7	9.4	1.04	60.3	3.0	-4.0	-6.6	-1.7
중국									
상해A주지수	1.42	14.5	10.0	1.42	65,453.1	-0.5	0.4	1.0	4.2
은행	0.65	7.1	9.3	0.69	11,815.7	-0.6	-2.7	4.5	-8.4
공상은행	0.62	7.0	9.1	0.68	2,455.9	-0.8	-2.3	3.3	-9.2
건설은행	0.71	7.7	9.5	0.73	2,040.3	2.9	3.2	16.1	9.4
농업은행	0.76	7.9	9.7	0.59	2,210.3	-3.1	-6.8	1.2	-16.3
중국은행	0.66	7.9	8.3	0.65	1,786.3	1.2	0.3	10.4	3.0
교통은행	0.48	6.3	7.7	0.61	571.6	-1.2	-4.7	-0.2	-8.4
초상은행	0.77	6.2	12.8	1.13	946.9	-1.7	-6.8	-4.4	-12.1
일본									
NIKKEI	2.79	22.4	12.2	4.26	1,009,268.1	3.1	6.3	12.3	29.7
은행	1.45	14.4	9.9	0.46	127,496.7	5.1	11.4	4.9	25.3
Mitsubishi UHF	1.62	15.4	10.8	0.61	36,267.7	5.5	10.6	7.1	22.6
Sumitomo Mitsui Financial	1.48	14.5	10.8	0.61	23,095.1	5.3	10.4	2.3	19.7
Mizuho	1.60	14.8	11.4	0.43	17,629.9	7.9	12.8	5.2	26.6
Sumitomo Mitsui Trust	1.17	13.0	9.3	0.37	3,926.6	-0.2	8.9	4.6	17.6
유럽									
MSCI Europe	2.31	15.6	14.3	1.79	15,076.3	3.3	2.9	1.0	5.6
은행	1.38	10.4	13.4	0.74	1,927.3	3.8	3.2	3.1	4.4
HSBC	1.71	11.3	15.4	0.84	236.1	3.8	2.9	10.1	17.1
Santander	1.39	10.3	13.7	0.78	153.2	2.4	0.0	-1.9	3.6
BNP Paribas	0.82	7.7	10.8	0.45	99.1	3.7	2.0	-2.3	11.3
Credit Agricole	0.70	7.7	9.5	0.26	52.2	2.1	-0.1	-7.0	-1.7
Deutsche	0.77	8.4	9.7	0.47	53.3	4.7	0.7	-10.2	-15.8
Unicredit	1.60	9.8	17.0	1.25	108.7	1.2	9.8	0.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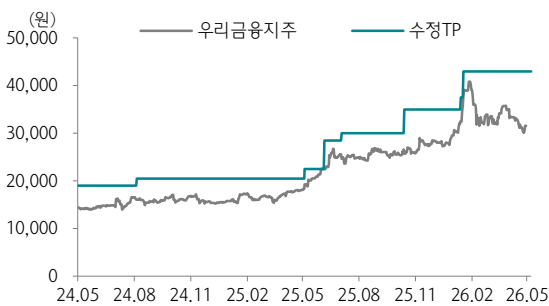
투자이전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하나금융



날짜	투자이전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157,000		
25.11.7	BUY	130,000	-25.41%	-6.00%
25.6.30	BUY	110,000	-20.85%	-12.27%
25.5.29	BUY	92,000	-14.77%	-8.48%
24.3.21	BUY	82,000	-25.94%	-16.10%

우리금융



날짜	투자이전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24.3.21	BUY	19,000	-23.12%	-12.6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5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이전 비율공시

- 투자이전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5%	2.75%	0.00%	100%

* 기준일: 2026년 5월 22일